



## 중재적 사회 · 문화 관점으로서의 칼빈주의

◎ 신국원 (충신대 교수, 실행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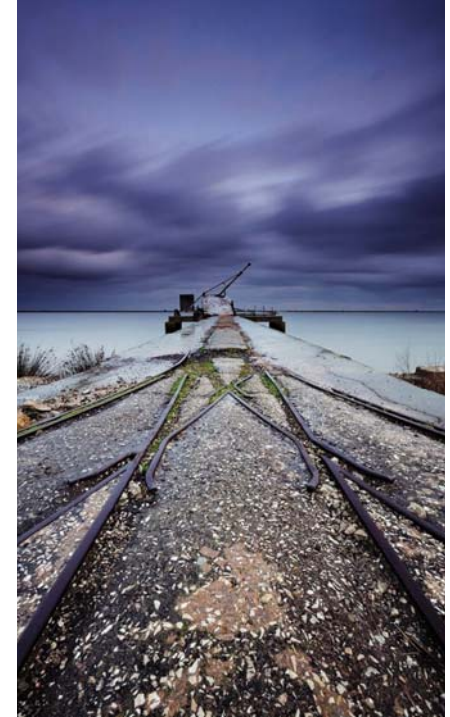
한국교회는 기록적인 성장과 열정적인 선교로 세계 기독교를 매혹시켜 왔다. 그러나 양극화된 사회와 개혁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신학적 성향을 놓쳐 극단을 조율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쇠락의 위기에 봉착했다. 과연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가.

### 교차로 위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식인들과 신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그 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아파한다. 이미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삶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칼빈주의적 가르침에 수용적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칼빈주의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후기 한국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꾸로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본질은 2004년 KBS 1TV <선교 120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에서 제시되었다. 한 유명인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공이 그들을 자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은 태만히 하고 대신 경쟁적으로 교회 성장에만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교회와 교회가 서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자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침입으로 거의 몰락해가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 ·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과 문화를 통한 진보적인 참여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일제 당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정교분리 정책을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와해되었다. 이러한 균형의 상실은 신학적 갈등이 일어날 때 깊어졌다. A. J.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가 개방된 이후 처음 25년의 전형적인 선교사는 청교도였다. 그들은 우리 뉴잉글랜드 선조가 한 세기동안 했던 방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춤, 휴연, 화투를 죄로 여겼고 그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에 대한 비평에 있어서는 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천천년왕국설을 대단히 중요한 믿음으로 유지하였다.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위협한 이단으로 여겨졌다.” (A. J. Brown, I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문서설(모세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후기에 여러 문서들의 편집으로 완성되었다는 가설)을 선견한 김재준을 당시 근본주의의 투사이자 평양신학교장인 박형룡이 “자유주의”로 기소하였다. 이 논쟁 이후, “자유주의”는 근본주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근본주의는 교조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는 당시 큰 문제였다. 관대한 신앙과 인본적인 경향을 지닌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종교적 의미가 없는 국가적 제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을 우상숭배로 거절하였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다. 보수적인 평양신학교도 1938년에 폐교되었다. 박해는 영적인 영역의 보수주의까지 후퇴시켰다.



현지화 정책과 다원주의에 대한 토론은 신학적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1960년대 국제무대에서 신(新)민족주의가 식민사관을 극복했듯이, “자유주의”가 한국에서 토착적인 신학을 구축하였다. 보수주의는 이러한 토착화 현상이 한국교회를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토착화 현상을 선전하던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끌며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다. 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통일교(문성명을 추종하는 모임)를 “통일교의 교세적인 측면, 내부의 체계화된 결집력이라는 측면, 상상력과 창의력의 측면에서 한국 신학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양하였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이단의 허용으로 이끌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1960년 초 민주화 과정에서 발

생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하던 식민주의 시대부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력한 반(反)사회주의의 기초가 유지되던 시절, 보수주의자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 근거하여 권위에 순종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이 군부독재에 의한 압제와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예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안에 항상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형태로 민중신학을 발전시켰다. 보수주의는 사회·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관점과 결합한 민중신학을 특별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긴장과 양극화는 진행되었다. 복음과 교회성장, 선교를 통한 영혼구원을 우선으로 강조한 보수신학은 큰 교회를 세웠으나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은 미비했다. 보수주의적 교회는 “성경”에는 신실한 태도를 보였지만 역사의식이 약하고 사회 맥락으로는 충분히 접근하지 않아 사회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시기에 일어났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우익세력을 편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한국사회만큼이나 한국교회도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비판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에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연대를 보였다. 기독교인들은 보수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 훨씬 많이 나뉘어져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화 지체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전도와 사회·문화 참여 사이의 중대한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세 가지 개혁주의 사회·문화 계획들

그러나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다. 몇몇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이며 보수적·근본주의적 교회의 이원론이 세계관, 학교, 사회·정치적 관습, 이 세 가지 원리와 전략적인 면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데 공헌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했다. 기록적인 성장이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은 성숙하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관심에 태만하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으며, 도피주의와 미신적인 기복신앙과 인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버렸다. 게다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장에 둬으로써 물질주의를 낳았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톨릭 신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있고 심지어 불교도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신교 교회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신교 교회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하나의 신호이다. 언론, 영상, 비정부기구들, 영화, 협회 등 다양한 경로에서 개신교를 비판하고 있다. 교회는 지난 30년의 급격한 문화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정부가 진보적·자유적이었던 최근의 10년은 더욱 그러했다. 한때는 한국교회와 문화와 사회를 이끌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교차로에 있다. 반기독교 정서와 비판은

먼저,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나머지 두 운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가 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1970년대 중반 학생들의 스티디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사회주의적·무정부주의적 과격한 민주혁명운동의 대안으로 그들의 의식화 운동과 비슷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보수주의적인 학생들은 신앙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세계관, 사회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매료되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마르크스·무정부주의적인 사회·정치 운동과 전통적인 이원론, 경건주의 기독교라는 극단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도움말 보수주의, 근본주의 : 보수주의 신학사상에는 여러 신학사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보통 역사적 기독교를 옹호하는 신학으로 개혁주의, 근본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기독교학문연구소(KACS, 現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이들 중 학자가 된 이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기독교경영연합, 기독교교사연맹, 누가의사회, 한국라브리, 기독교보호인연합, 기독교예술연합 등 수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났다. KACS와 관련된 학자들은 기독교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을 신앙으로 통합하도록 도우며, 학술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기독교 활동의 기반으로 간주된다. 세계관 운동은 이원론과 극단을 조율하는 문제를 극복함에 중요한 열매를 낳았다.

두 번째 운동은 “미션스쿨”과는 구별되는 의미의 기독교 학교 운동이다. 복음적이던 미션스쿨은 점차 후기에 이르러 예배(채플)와 성경연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그 교육

과정은 신앙과 배움을 분리하여 이원적이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윤리적 낙관주의, 다원주의, 실용주의를 암시하는 하나의 규정된 교육적 지위의 대안으로 기능하는 교육적인 이데올로기이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홈스쿨 운동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홈스쿨은 오늘날 146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인 개혁주의 전통으로 정형화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기독교윤리 운동(CEM)은 칼빈주의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공헌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일어났다. 서울대학교 한 윤리학 교수의 지도하에 시작된 기독교윤리 운동은 독재정부 아래 사회적 움

직임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문화에 참여하였다.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기독교학교 운동이 원리와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기독교윤리 운동은 실제적인 행동에 중점을 둔다. 기독교윤리 운동은 다양한 시민변혁 운동의 전략적 연합을 이끌었던 한국의 첫 번째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기독교윤리 운동은 청교도의 모든 덕목이었던 중용, 성실, 진실로 시작되었다. 정당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체크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을 설립하였고, 교회개혁 운동도 시도하였다.

기독교윤리 운동의 사회적 행동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며, 자신들의 문화적 비평을 형성한 학자, 변호사, 예술가, 그리고 목사로 구성된 “문화전략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구성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국립영상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은 몇몇 국가 위원회를 돕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운동을 네덜란드의 청교도나 미국의 신칼빈주의의 영향에 비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 등을 포함한 종교다원주의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지난 100년은 근대서구이념이 밀려들어오면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고 더욱 다원화되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제 120년이 겨우 조금 넘는 다. 신앙과 삶의 통합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풀어야 할 숙제이다. 칼빈주의의 공헌은 잠재적이고 전망으로 남아 있어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 한국사회를 위한 칼빈주의의 유산을 다시 살리기

오늘날 세계는 “문명의 충돌”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이념적 투쟁을 아우르는 국제정치는 문자 그대로 “문화전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망라하는 하나의 전면전이다. 오늘날 세계는 대중문화의 다원주의적 분위기가 도덕규범의 공통분모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문화에서 성경적 규범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는 지난 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정치적 입장 또한 동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유주의가 북종적이었던 반면, 보수주의는 국가주의적이었고 일본제국주의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 그러나 독재시대에는 자유주의가 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반면, 보수주의는 정부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또한 보수주의가 다원주의적 문화에 비호적이었던 반면, 자유주의는 다원주의적 문화에 호의적이었다. 보수주의가 친자본주의적 성향이라면, 자유주의는 친사회주의적 성향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인 차이는 경쟁의식과 상호 적대감에서 비롯된 신학적 입장 차이를 강조한다. 이들의 신학적 차이가 교리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이념과 책무에 대한 이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여전히 선교지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성장 중이어도,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은 한국교회의 성향이 조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며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우선권을 둬므로 계속된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교회는 안정과 평화의 인식처럼 보수신앙을 굳건히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인해 전체 기독교 인구의 70% 이상이 장로교인임에도 사회와 문화의 적극적인 변혁에 참여하는 개혁적 성향이 적은 주요한 이유이다.



게다가 의식적인 칼빈주의마저 점점 이원론적 신앙을 배워간다. 이원론적 세계관에 함몰되어 자신들의 선지자적 의무를 망각한 채, 사회·문화적인 넓은 시각을 잃어버렸다. 신앙주의, 도피주의, 신비주의, 개인주의는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린 수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결국 교회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 보수 교회는 다원주의, 양극화, 변덕스러운 사회·정치·문화적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응할 것인가 고심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칼빈주의자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사회는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잡힌 사회·문화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존 칼빈은 어수선한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주권”, “창조명령”, “전적부패와 구속”, 그리고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삶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개척하였다. 특히 그는 가톨릭과 루터라는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파와 재세례파 사이에서 분명한 중도의 길을 걸었다.

칼빈의 삶에 대한 균형잡힌 사회·문화적 관점은 다양한 곳에서, 각기 다른 상황과 시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장 좋은 예는 16-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시각과 19-20세기 네덜란드의 문화에 대한 신칼빈주의적인 관점이다. 각각은 특별한 사회·문화적 정황에 관련된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지혜가 오늘날 한국사회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본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정치적 배경은 신칼빈주의적인 경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많다. 그러나 전통은 쉽게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만약 강한 전통이 교조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죽은 통설”로 화석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은 반드시 재해석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시대의 옛 지도자들이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semper reformanda)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통주의가 아닌 전통은 반드시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계승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전쟁, 좌우 이념갈등, 경제정의를 향한 투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이다. 살롬은 기독교 담론에서 가장 긴급한 주제이다. 변혁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목표는 평화와 정의여야 한다. 이제는 화해에 주안점을 둘 때이다. 과

거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일반은총을 강조할 때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왕을 위하여”(Pro Rege)를 강조 해왔다면 이제는 사람을 향한 사역만큼 평화를 강조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포스트모던적 문화에 대응하여 의미 있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한국의 세계관을 회복할 시간이다. 이제는 변혁과 살롬의 조화를 이룰 신학적으로 건전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극단을 넘을 방법을 찾을 때이다. 이 관점은 이원론과 극단,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근거한 다원화된 사회를 증진시킬 “지주화”(pillariz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적인 비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극단을 조율하여 살롬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 본 칼럼은 지난 5월,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신국원 교수님의 논문 “Balancing the Extremes: Calvinism as a Mediatorial Socio-Cultural Vision”을 주최측에서 번역하여 저자의 확인 하에 본지 편집부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이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인경」(이상 IVF) 등이 있다.